

KEB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섹션

2022. 10. 24

서 정훈 연구위원

seojh@hanafn.com

02.729.0195

주간 달러/원 동향(10/17-10/21) 및 전망

◀서울외환-USDSP-체결> 2022/10/17 종: 1,440.30 ▲11.80 +0.83% 시: 1,440.90 고: 1,441.40 저: 1,438.20

10.17일 1,435.3(+6.8): 물가 불안에 따른 강달러에 상승.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 지표 상승에 1440.2원에 상승 출발한 환율은 장초반 결재 유입에 1441.4원까지 고점 높임. 이후 중시가 낙폭 반납 후 상승 전환하자 꾸준히 레벨 낮춰 1432.4원까지 저점 낮쳤으나, 장 후반 결재 유입에 낙폭 일부 되돌림.

10.18일 1,422.7(-12.6): 위험선호 회복과 파운드화 급등에 하락. 영국 감세안 추가 철회 소식에 1430원에 하락 출발한 환율은 네고 유입에 1420원대 중반으로 레벨 낮춤. 정오경 영란은행의 국제 매도 연기 보도에 파운드화 급등하자 1418.7원까지 저점 낮춘 후 낙폭 축소함.

10.19일 1,426.2(+3.5): 아시아 통화 약세에 상승. 장초반 결재 유입에 소폭 상승했다가 증시 외인 순매수, 네고 유입 등에 하락 전환 후 1413.1원까지 꾸준히 하락함. 이후 역외 달러 상승과 아시아 통화 약세에 1429.3원까지 고점 높였으나 장 마감 직전 상승폭 일부 반납

10.20일 1,433.3(+7.1): 글로벌 인플레이 우려에 상승. 유럽과 캐나다 9월 CPI 상승세 확인에 따른 물가 불안에 1435.4원으로 상승 출발 후, 네고 유입 속 1430원 아래로 야망 시도함.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 소식에 위안화 반등하자 1427.2원까지 저점 낮춘 후 결재 유입에 재차 상승함.

10.21일 1,439.8(+6.5): 미 국채금리 오름세 속 상승. 장 초반 네고 유입에 1431원까지 저점 낮춤. 이후 아시아장에서 미 국채수익률이 상승세 계속되고 달러-엔이 추가 상승하자 1441원까지 꾸준히 고점 높인 후 상승폭 소폭 반납.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달러-원은 9월 CPI 불안과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 지표 상승 속 연준 긴축 전망 강화되자 강달러 재개하며 상승. 이후 영국 감세안 추가 철회 소식에 파운드화 급등하자 상승폭 되돌린 후 낙폭 확대함.
- 주 중반, 달러-엔이 150엔 위협하며 연고점 재차 경신하고 달러-위안이 7.2위안 넘어서자 달러-원은 아시아 통화 동반 약세 영향에 상승. 유럽과 캐나다 9월 CPI 상승세 확인에 따른 물가 불안 또한 달러 강세를 자극함.
- 주 후반, 달러-원은 아시아장에서 미 국채금리 상승세 재개하자 연고점(1442원) 근방까지 꾸준히 상승. 그러나 당국 개입 경계와 네고 유입 속 상승폭 반납해 전주 대비 11.3원 상승한 1439.8원 마감.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은 다음주 FOMC(11/1-2)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 돌입해 연준 인사들 발언 부재하며 추가적인 강달러 제한된 가운데, 금주 주요국 금리결정 회의 소화하며 변동성 나타낼 전망. 지난 금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 일본 당국 달러 매도 개입하여 엔화 약세와 역외 달러 상승세 되돌렸는데, 일본 당국 적극적 개입 경계는 달러 상단 저항으로 작용할 듯. 다만 여전한 주요국 긴축 기조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 등은 잔존한 상황이며 달러에 지지력 제공함.
- 주말 발표된 50조원 유동성 공급 대책을 통한 크레딧 시장 불안 완화 또한 원화 강세 재료가 소화될 전망. 중공업체 매도, 월말 네고, 당국 환시 수급책 가동 또한 환율 하락 재료이며, 달러-원은 전주 대비 소폭 하락 압력 예상됨.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	------	------	------	------

1,440.90	1,441.40	1,413.10	1,439.80	+11.30
----------	----------	----------	----------	--------

예상거래범위

1,415원 ~ 1,443원

엔·유로화 동향 (10/17~10/21)



유로화 동향

- 주초, 영국이 감세안 대부분을 철회할 것이란 영향이 위험선호를 자극하며 달러 약세를 견인, 유로는 강세 출발 후 그 흐름을 다소 이어간 영국
- 중반 들어, 연준의 매파 성향이 시장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달러 강세 등으로 유로는 약세 전환
- 후반 들어,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자이언트 스텝 전망에도 미국 대비 속도가 다소 늦다는 점이 반영되면서 약세 흐름 지속. 이어 주 후반, 연준의 매파적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인사들에 의한 속도조절론 제기 등으로 달러화가 약세 전환하며 유로는 상승 전환하며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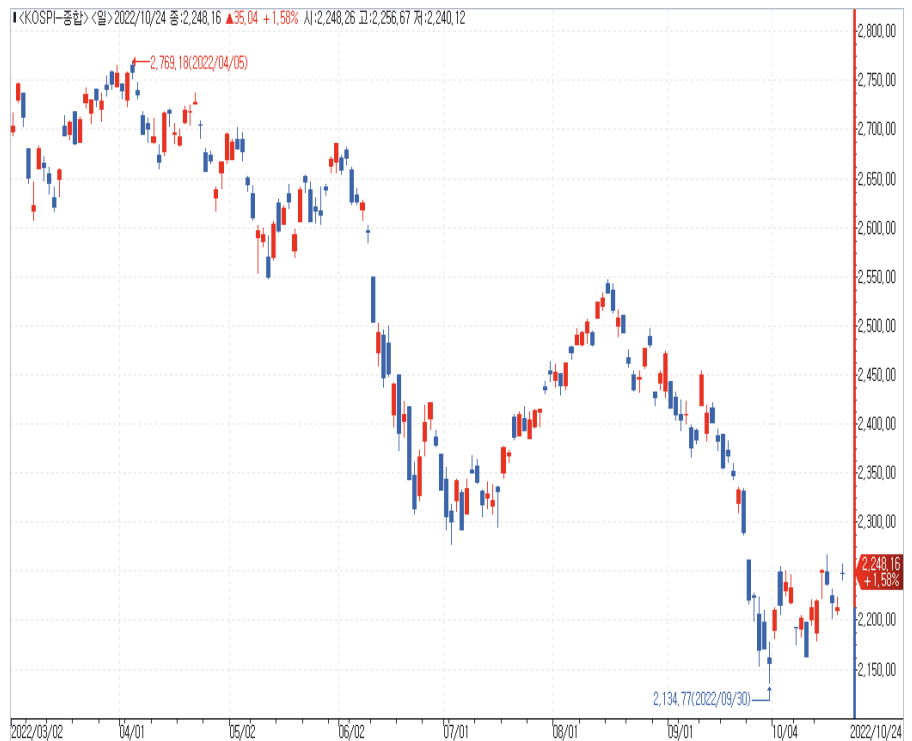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0.9721	0.988	0.971	0.9861	+0.0139

엔화 동향

- 주초, 영국의 금융시장 안정 조치에 따른 달러 약세에도 미 국채금리 상승을 반영한 미-일 금리차 확대에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150엔에 바짝 근접한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한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등으로 약세 흐름이 다소 제한된 양상
- 중반 들어, 연준 매파 성향 재확인 속에 BOJ의 초완화정책 지속에 따른 엔화 가치 하락 지지선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상승세 지속
- 후반 들어, BOJ의 초완화 통화정책의 근간인 YCC가 위협받으면서 긴급 채권 매입 정책 등에 따른 영향 반영 속에 엔화는 150엔을 32년 만에 상향. 이어 주 후반, BOJ의 이틀 연속 예정에 없던 긴급 국채 매입 단행 이후 전방위적인 당국의 실개입 추정 등으로 강세 전환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8.8	151.9	146.2	147.6	-1.18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0/17~10/21)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 초반, 미 10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국내외 금리 상승 출발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영국 감세안 철회 기대 등이 상승폭을 제한한 양상. 이어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속 크레딧 시장 불안감 등으로 상승 지속
- 중반 들어, 크레딧 시장의 유동성 악화 우려 이어지며 시장 심리가 악화된 가운데 9월 영국 CPI의 예상치 상회 등으로 국고채금리 상승세 지속
- 후반 들어, 글로벌 물가 상승세와 긴축 우려 지속되는 양상 속에 대내적 크레딧 위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채권안정 펀드 집행 발표 속에 소폭 상승 흐름 이어간 후, 주 후반, 연준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속에 미국채 금리의 상방이 영향을 받으면서 국고채 금리도 상승 흐름 이어가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국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금리인상 우려로 뉴욕 증시가 하락하였음에도 영국발 리스크 등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인식 등으로 외국인 11거래일 연속 순매수 속에 상승 출발. 이어 미국 뉴욕증시의 기업실적 개선 소식, 영국 금융시장 안정 등으로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 개선 속에 상승 지속
- 중반 들어, 뉴욕증시 변동성 확대 속에 국내 상장 기업 3분기 실적 부진 우려 등으로 하락 전환
- 후반 들어, 미 연준 긴축 우려가 재차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 '제로 코로나' 기조 유지 등에 대해 투자자들 관심이 집중하면서 소폭 하락 지속 후, 주 후반, 11월 FOMC에서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우려 등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 등이 투자심리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개인 순매도 등으로 하락 마감